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ad86e0eb4881f5d4cc32b1d9a350444d2aed778996deb0b9d696603e53f546f0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주요 뉴스: 미국 7월 소매매출, 전월비 1.1% 감소, 3/4분기 성장률 둔화 가능성
  - 연준 파월 의장, 델타 변이의 경제 파급 영향은 불확실
  - 중국 발전개혁위원회(NDRC), 에너지 소비 많은 사업을 억제할 방침
  - 자산운용사 InfraCap, 금융시장에서 지배적 위험은 2022년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강세[+0.6%], 금리 하락[-1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7월 소매매출 부진 등으로 투자심리 악화  
유로 Stoxx 600 지수는 보건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1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등이 배경  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0.3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  
독일도 미국과 동일한 이유로 5거래일래 최저 수준을 유지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7.9원, +1.1원) 0.1% 상승, 한국 CDS 보합

|    |      | 8/17일   | 8/16일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8/17일   | 8/16일   | 전일대비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4,448.1 | 4,479.7 | -0.71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1.26%   | 1.27%   | -1bp   |
|    | 유럽   | 473.78  | 473.45  | 0.07% 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-0.47%  | -0.47%  | 0bp    |
|    | 중국   | 3,447.0 | 3,517.3 | -2.00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18bp    | 18bp    | 0bp    |
|    | 일본   | 27,424  | 27,523  | -0.36%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38bp    | 37bp    | 1bp    |
|    | 한국   | 3,143.1 | 휴장      | -0.89%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-       | 364     | -  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93.14   | 92.63   | 0.55%  |                 | VIX   | 17.91   | 16.12   | 11.10% |
|    | 유로화  | 1.1710  | 1.1778  | -0.58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66.59   | 67.29   | -1.04% |
|    | 엔화   | 109.60  | 109.24  | -0.33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20.6   | 432.7   | -2.80% |
|    | 위안화  | 6.4863  | 6.4747  | -0.18%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786.2 | 1,787.5 | -0.07% |
|    | 원화   | 1,176.3 | 휴장      | -0.62%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미국 7월 소매매출, 전월비 1.1% 감소, 3/4분기 성장률 둔화 가능성

- 상무부, 이번 결과는 전월(0.7%) 및 예상치(-0.3%) 하회. 공급 차질 등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과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 감소 등이 주요 원인. 경제활동 재개로 서비스 부문 지출이 증가했으나 상품 판매는 상대적으로 부진
- Morgan Stanley의 Ellen Zentner는 3/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6.9%에서 6.5%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. Barclays의 Pooja Sriram은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으나, 전체 소비지출 증가세는 연초 수준을 하회할 수 있다고 지적
- 반면 NatWest Markets의 Kevin Cummins은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학교 대면 수업 재개 등으로 3/4분기 전체로는 소비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연준 파월 의장, 델타 변이의 경제 파급 영향은 불확실

- 델타 변이의 발생은 계속될 수 있지만, 기업과 가계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다고 언급.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경제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, 기업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사용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
- 이번 발언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당초 예상했던 경제회복이 일부 훼손된다고 해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

### ■ 미국 재무장관, 정부의 지출계획이 과잉투자라는 비판을 반박

- 정부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(물리적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)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계획이라고 언급. 이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

### 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(NDRC), 에너지 소비 많은 사업을 억제할 방침

- 또한 탄소 배출량이 큰 사업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. 이번 결정은 다수의 지역에서 당초 계획했던 환경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. NDRC는 이미 최근에 지방정부의 350개 이상 사업을 중단하도록 요구

### ■ 노무라, 일본의 비상사태 관련 경제 손실 규모는 3조4000억엔 추산

- 도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로 2조1900억엔의 손실이 발생했으며, 최근의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추가적인 손실이 1조2300억엔에 이를 전망. 또한 관련 영향으로 3/4분기 실질 개인소비가 전기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

### ■ 자산운용사 InfraCap, 금융시장에서 지배적 위험은 2022년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

- InfraCap의 Jay Hatfield 최고경영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2022년에 적어도 2회의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. 최근 다수의 지역 연은 총재들이 테이퍼링 시행을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

### ■ 호주 중앙은행, 코로나 19 상황 악화 시 필요한 행동에 나설 방침

-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,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.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자산매입 축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. 시장에서도 자산매입 축소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

### ■ 필리핀 대통령, 사상 최대 규모의 2022년 예산을 제시

-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19 여파로부터의 경기 회복을 목표로 전년비 11.5% 증액된 5조240억페소(991억달러)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. 구체적으로 백신 조달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와 인프라 투자 등에 3조4000억페소를 사용할 계획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1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산업생산(전월비): 1.4%, 6월(-0.3%), 예상치(0.6%)
- 미국 8월 NAHB 주택시장지수: 75, 7월(80), 예상치(80)
- 미국 6월 기업재고(전월비): 0.8%, 5월(0.5%), 예상치(0.8%)
- 유로존 2/4분기 성장률(잠정치, 전기비): 2.0%, 1/4분기(-0.3%), 속보치(2.0%)
- 영국 6월 실업률(3개월 평균): 4.7%, 5월(4.8%), 예상치(4.8%)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1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FOMC 의사록, 7월 건설허가, 주택착공
- 유로존 및 영국 7월 소비자물가,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### ■ 8월 잭슨홀 미팅,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- Reuters

(As investors look to Jackson Hole, options markets see 'a lot of nothing')

- 로이터 통신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난 해 미국 대선, 올 초 상원 결선 투표, 최근 FOMC 회의 이전 보다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헤지 수요가 악화되었다고 분석. 이는 투자자들이 연준은 테이퍼링 전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원한다고 예상하기 때문
- 아울러 최근 10년간 잭슨홀 연준 의장 연설 당일 S&P 500지수는 평균 0.6% 변동. 상당기간 주식시장 급락 후 빠른 회복 등이 헤지 욕구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. 하지만 역사적인 큰 하락은 시장 안정 기대가 선행된 점에 주의할 필요

### ■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투자, 수익성을 간과해서는 곤란 - Financial Times

(ESG must learn from the tech bubble — returns matter)

- 과거 IT 버블 당시 시장 다수는 수익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, 저금리 등을 배경으로 기술기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했고, 이는 손실로 귀결. ESG 투자도 최근 3년 간 급격하게 증가했으며,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유사한 상황
- 아직 ESG의 단기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며, 앞으로 투자 목표나 기대 수익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. 즉, 닷컴 버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의 잠재적 이익 외에도 재무성과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

### ■ 중국 당국의 규제, 위안화 국제화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 증대 - 블룸버그

(Yuan's Global Use Faces Test as Xi's Reforms Rattle Markets)

### ■ 미국 기업의 풍부한 현금보유, 지출 여력 증가로 향후 기업 가치 제고를 기대 - WSJ

(Investors Bet Corporate Spending and Buybacks Will Support Stocks)

### ■ 중국 기술기업, 정부 규제로 해외 보다 자국 통화 자금 조달을 선호 - Financial Times

(Chinese tech entrepreneurs grow wary of foreign funding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[ikyoon@kcif.or.kr](mailto:ikyoon@kcif.or.kr)